

## 재난에서의 집단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

오 혜 영<sup>†</sup>

이화여자대학교

최근 대규모 재난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위기의 특성을 반영한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에 관한 연구-기반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적에 따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리뷰하여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연구목적에 위하여 2015년 5월까지 국내외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에 소개된 재난 트라우마 및 지역 공동체 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관련 문헌 중 재난 트라우마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통해 개인 트라우마 개념이 갖는 한계점과 집단 트라우마 개념으로의 접근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탄력성의 개념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상황에서의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피해를 다룰 수 있는 역동적인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재난 지역공동체 탄력성의 증진을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협력적 유대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 모델과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재난, 재난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 지역공동체, 탄력성

---

<sup>†</sup> 교신저자 :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상담센터, 03760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Tel : 02-3277-3219, E-mail : ojuk@ewha.ac.kr

UN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벨기에 재난역학연구센터(CRED, 2010)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의 재난 건수가 매우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어난 재난 건수가 1900년에서 1910년 동안 일어난 재난의 무려 84배나 증가하였다. CRED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사망한 인구는 29만 7천명에 달하였고, 같은 해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총 1천 90억 달러(약 1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대에 들어 재난이 급증하고 규모가 대형화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하고 무리한 개발, 지구 온난화, 종교와 정치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정지범, 이재열, 2009). 우리나라도 역시 재난의 공포에서 예외가 아니다. 구제역과 같은 자연 재난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이외에도 지정학적, 군사적 위치로 인한 다양한 재난 위기를 안고 있다. 재난의 발생 원인을 차단하거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재난을 잘 예측하고 발생가능성을 낮춘다고 하여도 재난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통제의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킨다.

결국 현대시대에는 불확실한 재난과 위기를 얼마나 대비 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일단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기능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아젠다가 되었다. 특히, 재해 재난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 갈등, 지역 사회 와해와 같은 지역 공동체적 문제까지 야기시키면서 어떻게 재난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롭

게 대두되었다(Doherty, 2007; Erickson, 1995; Freudenburg, 1997; McEntire, 2001).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개입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에서의 트라우마와 치료에 치중하여 왔으며 지역의 갈등과 역동의 변화, 지역적 차원에서의 트라우마 개입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최남희, 2011; Mort, Convery, Baxter, Bailey, 2005; Picou & Marshall, 2007). 최근 대규모 재난이 급증하면서 개인 차원의 접근 한계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Doerty, 2007; Kessler, Galea, Gruber, Sampson, Ursano, & Wessely, 2008; Spana, Sell, & Morhard, 2013; Thomalla, Larsen, 2010)와 일찍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재난 트라우마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Erickson (1976)의 견해가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이에 관심을 갖는 치료자나 학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안산지역의 주민들 역시 사건 이후 지금까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8개 지역 7,104명 중 안산지역의 우울감 지수가 1.68배 상승하였으며 타 지역에 비해 정신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의협신문 2015, 4, 10). 이는 직접적, 물리적인 재난 피해가 없었어도 관련 지역 전반에 정신건강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Olf, Koeter, Haafte, Kersten와 Gerson(2005)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조사결과이다.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중후군(mers)사태’에서도 감염에 대한 공포로 인해 자가 격리자 뿐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진 자녀까지도 감염병 취급하는 학교나 지역공동체의 행태가

보도되었다(아시아경제, 2015, 6, 21). 재난 불안에 휩싸인 공동체를 방치했을 때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재난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정신적 가이드나 중재적 접근이 부재할 때 피해자 가족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에도 트라우마 영향이 계속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이 발생 하였을 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전체에 대한 개입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재난 현장에 대한 연구 자체가 발생학적 측면이나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이나 집단 트라우마 연구는 연구자들의 관심 범위 밖에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난을 이해하고 재난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역동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재난 트라우마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난을 개인 트라우마로 접근한 기존 연구들과 집단 트라우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내외 연구들을 비교하고 집단 트라우마적 접근과 개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공동체가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전 사회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사회로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탄력성’의 개념들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공동체 탄력성 연구는 주로 사회학이나 행정학, 환경학, 방재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현재까지 보고된 다양한 분야

의 지역공동체 탄력성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복원의 시사점과 지역공동체 개입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 방 법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 데이터베이스 RISS와 국회전자도서관, KISS, 그리고 SCOPUS, ERIC, Google에서 1969년부터 최근 2015년 4월까지의 자료를 “재난(disaster)”과 “집단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 “재난(disaster)”과 “지역사회(communitiy)”와 “탄력성(resilience)”을 주요어로 검색하였다.

먼저, 국내 검색 전체 학문 분야에서 “재난(disaster)”과 “집단 트라우마(collective trauma)”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이를 다룬 국내 논문은 1,552편 중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학술 검색에서는 학술지 3편과 저서 1권이 검색되었다. 이에 2차로 “재난”과 “트라우마”를 키워드로 검색한 후 이 중에서 “지역 갈등” 혹은 “사회 갈등”, “집단 갈등” 등을 키워드로 다시 검색하여 최종 국내외 학술지 22편과 5권의 저술서 등 총 27편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재난의 특성과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이 언급된 것’, ‘재난의 특성과 집단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보이는 집단 갈등이 보고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 선정된 21편의 문헌에서 집단 트라우마 접근과 개념을 추출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문헌에 나타난 지역공동체 탄력성의 개념을 비교하기 위해 “재난(disaster)”과 “지역사회(communitiy)” 혹은 ‘지역공동체’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87편이 추출되었다. 이 중에

서 “탄력성(resilience)”을 키워드로 다시 검색한 결과 2015년 4월까지 국내 학술지는 총 9편의 논문이 보고되었고 해외 학술지와 저술에서는 26편이 보고되었다. 지역공동체의 탄력성에 관한 논문은 많지는 않지만, 최근 3년 사이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과 재난 안전 분야, 행정학과 사회학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전혀 없는 보험, 의연금, 자율방재, 경제, 정치, 행정체계 등의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를 위해 최종 선정된 26편의 자료들에서 지역공동체 회복력의 개념을 비교하고 정리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 결 과

### 집단 트라우마로의 접근

재난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적 심리치료와 심리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내용은 응급 상황에 대한 조치나 개인의 심리지원에 대한 연구, PTSD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ria, DiGrandle, & Adams, 2011).

현재까지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재난을 ‘개인 트라우마’ 개념으로 정의하는 견해 즉, Tedeschi와 Calhoun(2004)의 견해처럼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나 삶을 뒤흔드는 사건(seismic event)이며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재난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개인이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을 완화시키고 정상성을 회

복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재난 직후 나타나는 반응들로 두려움, 불안, 죄의식이나 수치심, 상황에 대한 부정, 구조요원의 지시를 거부함, 무력감과 혼란, 강박행동이나 과도한 흥분이 나타난다는 연구(Cohen, 1990)나 재난 트라우마가 과도한 흥분(hyperarousa), 반복적 재경험(re-experience), 회피행동(avoidance) 등의 개인 외상 반응과 관련 된다는(Ruggiero, 2001)는 연구들과 같이 개인 외상 반응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또한 개인의 외상 반응에 대응하여 개인의 심리적 안정화를 추구하는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김미리혜, 1998; 안현의, 2007; Roberts, 2005; Westefeld & Heckman-Stone, 2003). 김미리혜(1998)는 생존자가 원래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환경적 자원을 활용하는 단기 개입을 제시하였다. Roberts(2005)는 재난 위기의 심각성 평가와 생물심리사회적 평가(biopsychosocial)를 통한 진단과 협력적 관계 형성, 상황과 내담자 정서를 탐색, 가능한 대안과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7단계 개입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호흡법, 근육이완법, 자기 대화 연습, 불안 조절 기법, 이미지 노출 기법, 인지 치료 등을 포함한 CBT를 이란의 지진 피해 사례에 적용한 연구(Mitra, Laily, & Jafar, 2008)나 안구운동과 같은 양측성 자극과 함께 외상성 기억에 집중하여 인지적 변화와 불안 등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EMDR(김대호, 2005; Stapleton & Tayler, 2004)등과 같은 연구들이 있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정신적 외상 경험을 대면하고 이에 대한 감정적 처리를 도와주고 치료를 통해 인지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Rothbaum, Astin & Marsteller, 2005), 일반 트라우마와 재난 트라우

마을 개인이 경험하는 '위기'라는 동일선 상의 개념으로 보고 개인의 맥락에서 경험하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Doherty(2007)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재난은 개인차원이 경험하는 트라우마 경험과는 다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난을 경험한 개인의 심각한 트라우마 반응을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재난이라는 대규모의 공통적, 집합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재난을 개인적 트라우마 개념 차원이 아닌 집합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는 오래 전부터 소수의 학자들에게서 제기되어 왔다(Fritz, 1961; Kinston & Rosser, 1974; Erickson, 1976). 이들에 따르면 재난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성을 띠는 것이며 지역사회가 급박한 위기상태에 놓여 있어 개인적 차원의 개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재난에 대해 개인 트라우마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개인의 위기를 완화시키거나 재난 이전 수준의 기능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재난 특유의 집합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며 집합적 대상들에게는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연구들은 재난 트라우마는 개인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하지만 일반 트라우마와 다른 집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Jonathan(2001) 역시 재난의 외상 반응을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재난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특정한 심리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반응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트라우마 개입과 다르다고 보았다. Shalev와 Freedman(2005)은 재난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재난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정상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는 것보다 안

전과 필요와 우려를 지원하는 지지적 관계 형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하였다. Allen 등(2010)은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많이 잃을수록 대규모의 충격을 겪게 되어 개인적 접근 보다는 충분한 자원을 얻게 해주는 지역사회의 실질적 원조와 심리적 지지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Allen과 Nairne(1984) 역시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차원에서 재난 실체에 기초한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고 서로 공유하도록 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가지게 하는 집단적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재난 트라우마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재난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난의 정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에서의 재난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큰 규모의 사건으로서 그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생명과 재산, 사회 간접시설과 생활 수단에 대해 일상적인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으로 정의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심각한 파괴로 인하여 생태학적으로나 사회 심리학적으로 피해지역이 자신의 대처 능력을 초과한 상태”로 정의(Gosney, Reinhardt, Haig, 2011)하며, 유엔국제재해경감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2015)는 “10명 이상의 사망 사고”,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정부에 의해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선포된 경우”, “국가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로 재난을 정의한다.

요컨대, 재난은 큰 규모의 사건 혹은 지역의 대처능력을 초과한 상태 등으로 규모가 정

의되며 직, 간접으로 재난을 경험한 다양한 인구 집합의 경험이 존재하며 지역의 기본 조직이나 대처 능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상태로 정의된다(Kessler et al., 2008; Mort et al., 2005). 또한 재난은 개인의 위기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 또는 더 나아가 국가까지도 압도하는 특성이 있으며(Kelleman, 2007; LaCapra, 1998),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집단의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Clarke, 2003). 지역의 다양한 시설과 기구, 조직, 수단, 법과 제도, 규칙 등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로 기존의 지역의 형태와 구조는 변형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갖는다. 즉, 재난은 기존 지역 체계가 붕괴되거나 혹은 새로 조율되는 역동적인 지역의 변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Pfefferbaum & Doughty, 2001; Shultz, Espinel, Geaca & Reissman, 2007). 또한 재난은 구조, 구난, 지원, 치료, 보상 등 외부의 원조를 필요로 하나 제한적 자원으로 인해 원조 과정에서 지역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단체나 기관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윤순진, 2008; Mort & Convery, 2005). 재난에 의한 심리적 파급효과는 재난 자체의 물리적 속성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재난이 일어난 지역사회집단의 여러 맥락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Ramirez & Peek-Asa, 2005). 따라서 재난은 집합적 특성, 공동대응적 특성, 파급효과, 갈등구조와 사회문화적 가치변화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변화를 발생시키므로 개인적 심리트라우마 경험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정지범, 이재열, 2009; McEntire, 2001; Mort et al., 2005).

재난에서의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을 검토하기 위해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피해

를 광범위하게 다룬 Mort 등(2005)의 연구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Mort와 그의 동료들(2005)은 당시 엄청난 규모로 발생한 구제역이 농촌 거주자들의 건강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Mort 등(2005)은 6개 대상 즉, ① 농부, 농장 일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 ② 관광, 공예, 상업 등을 하는 소규모 사업가들 ③ 가축운반업, 농산물 계약업, 농산물 경매업 등 농산물 관련 종사자 ④ 구제역 관리 관련 공무원, 도축팀 ⑤ 교사, 종교인, 처리지역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 ⑥ 의사, 지역사회 간호사, 수의사 등 의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 자료와 일기를 수집하였고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구제역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음을 알 수 있었다. 비탄, 상실의 감정, 새로운 질병에 대한 공포, 통제 당국과 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상실, 지역 지식의 가치 등에 대한 손상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규제들에 대한 부담, 구제역이 다시 올 것 같은 두려움, 더 나아가 영국 전역에 농촌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감을 하락시켰다는 보고도 포함되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를 다룬 연구들 중에도 집단 트라우마의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Picou와 Marshall(2007)은 2005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피해로 제방 파손으로 인한 홍수, 피난 등의 물리적 문제 외에도 새로운 곳으로의 이주와 정착 과정이 늦어지면서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Picou와 Marshall(2007)에 따르면, 새로 전학 온 학생들은 교통수단이 없어서 등교가 곤란했고 집은 너무 허름해서 자주 이사를 가야 했으며 그 결과 잦은 결석으로 인해 성적이 하락하였

으나 학교에서는 심리적 조치 없이 오히려 처벌, 제적 등을 가하였다. 허리케인으로 집과 가족을 잃는 아픔 외에도 이후 복구 과정에서 주어지는 집단 차별, 무시, 갈등, 제대로 취급 받지 못함 등 다양한 집단 갈등이 나타났다. Picou와 Marshall(2007)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은 기존의 안정된 삶과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삶의 형태, 즉, 각종 구호물품과 나누어주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 긴급의료서비스로 일상적 필요를 대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의 삶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는 기존 주민과 정착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적 형태와 구조는 변형되고 새로 유입된 이주민과 기존 주민 사이에, 보상을 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생겨난다.

다른 문헌에서도 재난 이후 구성원들 간의 상호지원이 감소하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자원 불균형과 관련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긴장, 두려움, 유언비어 등 다양한 심리적 갈등의 표출이 보고되었다(Freudenburg, 1997; Picou, Marshall & Gill, 2004).

국내 연구 중에서는 재난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를 직접 다룬 문헌은 아직 없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안반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로 보상기준, 보상지연 등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갈등이 생기면서 마을 간, 업종 간, 세대 간 갈등이 고착화된 예이다(윤순진, 2008; 이재열, 윤순진, 2008). 재난 발생 후 공동체 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 즉 생계 자원이 줄어들고 공동체

간의 상호지원이 감소하면서 생계를 외부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구성원들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김도균, 2011). 김도균(2011)은 갈등이 첨예했던 지역 주민의 인터뷰 인용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겠지만 갈등으로 인하여 붕괴된 문화는 재생 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공동체의 연대 약화와 문화 붕괴는 경제적 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지역에 안겨줄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구제역 피해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도 집단 트라우마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지역이었지만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서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과 국가에 대한 원망감을 가지게 되었다’, ‘00가 이 피해의 원인(진원지)이다’, ‘보상 이전에는 가까운 사이였지만 이젠 갈등이 심해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다’ ‘축산 농가는 지역을 떠나라’는 등 지역공동체 균열과 갈등이 드러났다(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1). 최남희(2011)는 재난 이후 떠오르는 정신사회적 문제는 개인적 문제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서 재난 발생 후 자원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배신, 속임이 잇달아 일어나며 공동체의 와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최남희 등, 2008). 이들은 이러한 지역 와해 과정은 재난 이후에 개인과 집단, 가족과 공동체가 조금씩 역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Erickson(1995)은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개인 트라우마 치료에도 불구하고 집단 트라우마로 인해 개인이 지역 안에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책임이나

도의적 실천을 외면할 때 생긴 사회적 불신과 배신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굴욕감과 평가 절하를 경험하게 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 불가능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 보았다. 즉, 재난을 집단 트라우마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적절한 개입지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다. O'keefe, Westgate와 Wisner(1976) 역시 재난피해는 자연적 요소라기보다는 사회 경제적 취약성의 결과라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김도균(2011)은 재난복구는 환경적·경제적 복구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차원의 복구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Ramirez와 Peek-Ase(2005)는 재난은 대체로 피해가 광범위하고 지속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 반응을 유발하고 사회조직과 문화적 틀이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 입은 인구집단의 임상적 반응만을 다루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물리적 위해 요소(physical forces of harm), 인구집단(population), 그리고 맥락(context)의 3요소를 적용하여 생태학적으로 재난 트라우마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표 1은 재난 관련 문헌들에 나타난 개인 트라우마와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 트라우마와 구별되게 재난 트라우마를 다루는 문헌들을 토대로 재난에 대한 정의와 범위,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요소와 접근방법에 대하여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문헌 중에서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경우는 Erickson(1995)으로 재난 트라우마를 '사회생활의 기본 조직에 타격을 입힘으로써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연대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보편적인 감각을 저해하는 집단 트라우마'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재난 트라우마가 공동체의 감각을 저해한다는 견해는 일찍이 Erickson(1976)의 버팔로 크릭 재난 연구에서도 시사되었다. 그는 개인 치료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사회가 황폐화되고 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는 데에는 공동체의 연대감 파괴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집단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Clarke(2003)은 재난 이후 공동체의 유대감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엘리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엘리트 패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재난이 닥쳤을 때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 불능에 대한 공포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잉 반응하여 격리수용, 과잉언론통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혹은 강압적인 방식 등으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유연한 구조방식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llen과 Nairn(1984)는 재난을 경험한 집단이 사실에 근거한 기초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쓸데없는 불안을 줄이고 서로의 유대감을 통해 트라우마 반응의 정상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지범, 이재열(2009)은 재난 복구가 지역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지역사회유대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재난 트라우마는 개인 트라우마보다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상처들이 깊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나며



표 1. 개인 트라우마와 재난 트라우마의 비교

	개인 트라우마	재난 트라우마		
위기 사건	DSM-5 (2016)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개인의 신체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2014)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이하 UNCRD(2009)	지역의 기본조직, 정상기능을 와해, 지역사회가 외부 도움없이 극복할 수 없는 사건
		트라우마 사건을 직접 경험, 목격, 노출된 경우 포함	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2015) Gosney, Reinhardt, Haig, Li (2011).	피해지역의 대처능력을 초과한 상태
	Tedeschi & Calhoun (2004)	주관적으로 지각한 삶의 위기, 삶을 뒤흔드는 사건 스트레스 사건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이하 UNISDR(2015)	10명 이상의 사망, 100명 이상의 피해자 발생한 경우
범위	Morris (1982)	교통사고, 이혼, 성폭력, 질병, 학대 및 각종 재난 포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6)	인적 재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
	Ruggiero (2001)	과각성, 재경험, 회피나 정서적 마비	Erickson(1995) 김도균(2011)	지역의 기반 와해, 지역공동체의 갈등과 연대감 저하, 문화와 사회적 구조 변형
평가 요소	Cohen (1990)	급성스트레스 반응, 심각한 PTSD 등	Plough 등 (2013)	개인적 치료의 총합 이상, 지역의 정신사회적 건강 수준과 체계, 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
	Roberts(2005), Kanel(2006) 안현의, 한민희, 주혜선 (2013)	노출수준, 해리증상, 공포감, 무력감, 지각된 위협감, 사회적지지, 인지적 평가, 가족환경	Freudenburg(1997), Picou 등(2004)	자원 불균형, 외부 의존, 이주와 정착, 구호와 보상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
접근	Yule(2006) Mitra 등(2008), 김대호(2005)	트라우마에 대한 증상 완화, 감정적 처리, 인지적 변화, 호흡, 신체적 이완, EMDR 등 감각해제 기법	Norris, Stevens, Pfefferbaum, Wyche & Pfefferbaum(2008), Lederach(1997), 김도균(2011), Pieper(2012)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와 정보공유, 지역갈등과 정신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 지역사회의 공동 목표 합의와 추구, 집단의 성찰과 극복작업

표 2. 재난문헌에 나타난 집단 트라우마 요소들

구분	연구자	연구 내용
국 내 연 구	정지범, 이재열(2009) 김교현, 권선중(2009) 박상규(2013)	보상과 파급효과 측면에서 집합적 특성, 공동대응적 특성 요구
	최남희 등(2008) 오혜영 등(2011)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가 조금씩 역동하면서 지역 사회내의 불신, 배신, 와해가 일어남
	김도균(2011)	재난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갈등과 균열
	변주훈(2010)	차별적 인식과 사회적 갈등의 생성
	Cutter(1993)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성물과 그 지역에서 일어날 위협의 상호작용 결과
	O'keefe 등(1976)	재난에서 자연적인 것 추출하기, 자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의 결과
	Mort & Convery(2005)	구제역 발생지역의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가치 평가절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산업구조 변화 등이 나타남
	Erickson(1995) Erickson(1976)	지역공동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사람들의 결합을 파괴, 개인트라우마보다 천천히 나타나지만, 개인트라우마 치료로는 충분치 않은 집단적 개입을 필요
	Freudenburg(1997), Picou 등(2004)	지역 구성원간의 상호지원이 감소하고 자원 불균형에 대한 경쟁과 갈등, 긴장의 발생과 지속
	Ramirez, Peek-Ase(2005)	피해자의 임상적 반응 뿐 아니라 사회조직과 문화적 틀이 무너지는 지역의 상황을 다루어야 함
국 외 연 구	Kellerman(2007)	전쟁이나 테러, 자연 재해와 같은 트라우마는 국제적이고 집단적인 영역에서의 탐구와 해결을 위한 집단 환경을 필요로 함
	LaCapra(1998)	‘참혹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들로서 생생하고 격한 정서반응과 가치 판단이 깊이 개입된 문제’ 집단의 기억과 성찰에 대한 개입
	Pieper(2011)	개개인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가 사고의 피해자, 공동의 고통에 반목하고 침묵하게 될 때 지역은 충격과 마비에서 헤어나오지 못함
	Clarke(2003)	‘엘리트 패닉’, 격리수용,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혹은 강압적인 방식의 통제 등 엘리트의 대처가 오히려 혼란 가중, 무질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황으로 과잉반응을 하여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는 것
	Allen, Nairne(1984)	재난을 경험한 집단의 사실적 정보 공유가 중요, 서로의 유대감을 통해 트라우마 반응의 정상화
	Healey(2002)	외부인에 의한 하향식 재난구조가 지역 공동체의 균열을 초래, 이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는 복구는 혼란, 불신, 무기력을 야기

(Erickson, 1976), 외부 지원에 대한 집단 공동체의 합의된 규범이나 이해가 없을 때 많은 반목과 갈등이 일어난다(김교현, 권선중, 2009). 사회적 무질서나 통제 불능에 대한 엘리트 패닉과 같은 혼란(Clarke, 2003)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지역공동체 유대의 유지와 회복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개인 트라우마와 구별된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재난 트라우마 개념으로 LaCapra(1998)의 견해가 있다. 그는 재난 트라우마를 역사적 트라우마로 특별히 명명하면서 이를 ‘참혹한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들로서 생생하고 격한 정서반응과 가치 판단이 깊이 개입된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정신분석학적 역사학자인 그는 홀로코스트 사건과 같은 유대인 학살의 참상을 분석하면서 재난 트라우마를 집단 트라우마로서 특히 집단의 기억과 역사적 측면에서의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LaCapra(1994)에 따르면 과거를 망각하거나 트라우마를 부정함으로써 성급하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획득하거나 정상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라고 보았다. 산발적인 개인 차원의 슬픔이나 애도의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나려면 책임감 있는 대답을 주려는 사회정치적 여건과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애도과정을 거친 성찰적 극복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LaCapra,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Pieper(2011)는 1987년 베스트버트 유조차 충돌 사고 사건의 유족들과 피해자를 치료를 분석하면서 지역사회가 더 이상 사고를 언급하지 않고 추모를 위한 상징도 만들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경험을 공동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을 때 피해자들이 보고했던 소외당한 느낌과 모욕당한 느낌을 기술했다. Lanzmann(1995) 역시 집단의 기억 부

재 지점과 집착 지점이 집단 트라우마의 장이 된다고 보았다. Erickson(1976)은 상처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LaCapra(2004)는 ‘집단의 성찰과 기억과 질이 집단 트라우마 치유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집단의 성찰과 애도를 통한 성공적 회복 사례로 Pieper(2011)는 노르웨이 우토야 섬의 총기난사 사건의 회복 과정을 예로 들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적 개입과 애도 작업이 계속 이어졌고, 언론과 각계 전문가들은 여러 달 동안 참사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 원인을 모색했고 정기적인 묵념과 추모가 이어졌다. 모든 작업과 모든 관련자들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요. 숨지 말고 함께 괴로움을 나눠요”였으며 사회는 각 개인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서로 간에 다리를 놓아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노르웨이는 인간과 인도주의에 대해서 공동체가 함께 성찰하고 함께 애도와 기억을 나누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이해와 보호는 집단 트라우마의 강력한 치료제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들에 따르면 재난 트라우마는 참혹한 재난 사건에 대한 집단의 기억과 성찰의 질, 지속적인 애도작업과 집단의 이해가 치유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개인트라우마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집단 트라우마는 세대를 통해 전승될 뿐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정신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Leverton과 Volkas(2010)에 따르면 재난 트라우마는 관련된 사람들에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흡수되고,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된다. 이를 다루기 위해 Volkas(2009)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트라우마를 다루는 HWH(Healing the Wounds of History)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독일인과 유대인을 함께 한 집단으로 다루면서 Volkas는 결국 모든 인간은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분열을 치유하는 것은 양 집단의 인간성을 대면하고 서로를 인간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과거 비인간화와 잔인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개인 트라우마와 달리 재난 트라우마는 집단의 밑바닥에 깔린 공동체적 이야기와 무의식적 역동에 대한 집단적 접근을 통해 분열과 갈등을 벗고 효과적인 치유적 공동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집단 트라우마는 “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물리적 피해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피해 집합 이상이며 피해자와 외부 원조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로 야기되는 지역공동체의 문화 경제적, 심리 사회적 피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 트라우마 현상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집단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고통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때 그 때 떠오르는 집단의 이슈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가며 재난 이후 집단의 적절한 가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집단의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 애도를 거쳐 극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경험은 개인과 지역공동체에 치유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문헌들은 보고하고 있다.

### 재난에서의 지역공동체 탄력성

최근 2005년 UN산하 재난 위기 감소를 위한 국제 전략(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회의에서 재난관리에서 탄력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지역의 회복과 관련하여 탄력성 개념이 사용되었다. 탄력성은 원래 생태학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사전적 정의는 ‘변형된 물체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www.scienceall.com, 과학백과사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 및 테러 대응 연구소(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2009)에서는 탄력성을 ‘현상으로서의 탄력성, 과정으로서의 탄력성, 힘(재건 에너지 및 동기)으로서의 탄력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omfort(1999)는 ‘현존하는 자원, 기술을 새로운 체제나 운영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Cardona(2003)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생태계나 커뮤니티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생태계 시스템을 연구하는 Resilience Alliance(www.resalliance.org)는 ‘외부충격을 견뎌내며 필요로 할 때는 스스로를 재건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환경과 구조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이나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변화자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탄력성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은 지역공동체의 탄력성에 관하여 대표적인 연구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3. 지역공동체 탄력성의 선행 연구 개관

구분	연구자	연구 내용
국 내 연 구	김교현, 김세진, 권선중(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적응과정 제시, 상호신뢰의 중요성 제시
	김도균(2011)	공동체의 여러 가지 적응 능력 중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자본이 핵심요인
	노진철(2014)	재난상황에서도 지역공동체의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 특정 장소의 안과 밖, 경제, 정치, 법 체계와의 경계 확정을 전제로 작동한다고 보았음
	류현숙, 정재기, 정지범(2009)	미래 재난연구의 패러다임으로 현재의 취약성(vulnerability)대신 탄력성(resilience) 및 적응력(adaptive capacity)을 제시
	양기근(2009), 양기근(2011)	재난과 탄력성에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봄 재난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역할 제시
	전대욱, 최인수 (2014)	탄력성을 4요인 내구성(robustness):충격에 대한 견고함, 가외성(redundancy): 대체가능한 백업시스템, 신속성(rapidity): 최단 시간안에 원상태로의 회복, 대응, 자원부존성(resourcefulness): 구성원의 개인, 가족,공동체의 개별적, 집단적 대응역량으로 설명
	정지범, 이재열 (2009)	탄력성이 강한 공동체의 특징;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자본을 핵심요인으로 제시. 공동체의 도덕적 자원의 중요성 제시
	FEMA(2013)	지역사회가 재난에 강한 공동체로 변화하려면 고용자 및 피고용자 그룹, 지역사회조직, 서비스업종 그룹 및 지방정부의 협동적 참여와 책임이 우선 i) 파트너십 만들기 ii) 위험과 취약성 확인 iii) 위험 경감 - 실행의 우선순위 정하기 iv) 성공을 위한 (각 주체 간) 의사소통 구체화 10단계 계획 틀 제시
	IFRC(2009)	개인, 가족, 지역사회안에 있는 탄력성을 촉진시키는 심리사회적 지지. 집단의 요구나 자원에 따라 활동을 설계
	Mayunga (2007)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경제, 정치, 법규범, 자연 생태계 등의 각 비용을 계산, 사회공학적으로 시장의 경제상황을 상정한 사회적 자본을 강조
국 외 연 구	Myers (2005)	미래지향적 재난 관리, 사람 중심으로 개인과 지역의 역량과 시스템, 전략을 수립
	Norris 등(2008)	공동체의 네 가지 적응능력을 제시: 사회적 자본, 경제발전, 정보통신 공동체 역량에 따라 탄력성이 결정
	Pine(2009)	탄력성이 강한 공동체의 특성으로 공동체의 신뢰도, 사회적 규범, 공동체 참여수준, 공동체 네트워크 제시
	Reich (2006)	탄력성은 회복 능력(ability rebound back)을 의미, 심학적 원리를 재난 계획에 포함, 탄력성의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3Cs"제시: 통제(Control), 응집력(Coherence), 그리고 유대감(Connectedness)
	Walker, Salt(2006)	탄력성의 추구 가치와 지표를 제시: 다양성(diversity), 생태적 가변성(ecological variability), 모듈화(modularity), 느린 가치의 이해(slow variables), 단단한 피드백(tight feedback),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혁신(innovation), 거버넌스의 중첩성(overlap in governance),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
	Zhang, Zhao(2013)	재난의 극복단계별 공동체의 역할: 단기 복구단계에서는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자원의 배분, 장기적인 복구단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유효

제시된 연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탄력성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난을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외부적 충격, 스트레스, 피해의 결과로 바라보던 환경결정론(Middleton & O'Keefe, 1997)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경 통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Myers(2005)는 이를 '미래지향적 재난 관리'라는 용어로 표현하면서, 사람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의 탄력성(resilience)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기근(2011)은 공동체의 복원은 인간과 공동체, 사회, 환경 등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하면서도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단기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복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경이나 자원, 시스템의 분배에 있어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의 규범, 다양성과 가변성에 대한 존중 등의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체가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현상을 서로 잘 인지하고 그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개방적으로 논의하며 공동의 방향을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지범과 이재열(2009)은 지역사회가 높은 수준의 탄력성(High Resilience)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시스템 전반에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며, 구성원 개인들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공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반면 위협에 대한 인지가 지역 구성원에게 골고루 퍼져 있지 않으며 위협에 대한 대응이 과도하게 중앙 집권화 되어 있을 때, 개인들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조직의 이해와는 상충하게 될 때 탄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노진철, 2014). 정지범, 이재열(2009)은 탄력성이 강한 공동체는 탄력성이 약한 공동체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았으며, Pine(2009)는 그 특징으로서 공동체 내의 신뢰의 정도, 사회적 규범, 공동체 참여 수준, 그리고 강한 공동체 네트워크의 존재 유무 등을 꼽았다. Zhang과 Zhao(2013)는 재난의 극복단계별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는데, 단기 복구단계에서는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자원의 배분이 유효하지만, 장기적인 복구단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유효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해 허베이 기름 유출 사고에서 백여 만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원을 위해 노력했고 지역민도 매우 힘을 얻었지만, 그 기간은 3-4개월에 머물고 말았고, 이후 마을 공동체는 상호신뢰를 하지 못하여 균열하게 되어 탄력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 사례가 보고되었다(정지범, 이재열, 2009; 김교현, 권선중, 2009).

Norris 등(2008)은 지역의 탄력성은 사회적 자본, 경제발전, 정보통신, 공동체 역량(community competence)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체의 네 가지 요소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서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 뿐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나누게 만들며 지역사회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김도균(2011)은 공동체 역량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여러 가지 적응능력 중에서 재난의 방어적 변수로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자본이 핵심요인이라고 보았다. 정지범과 이재열(2009)은 경제적 탄력성이나 자연적 탄력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거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요소인 반면,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탄력성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사회적 자원은 공동체의 도덕적 자원(communal moral capacity)이라고 보았다(정지범, 이재열, 2009). 관련 예로서 김도균(2011)은 피해지역이었지만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회복을 시도한 도산도와 하전 2리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두 마을은 1차 생계비를 균등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기저에는 공동체적 관계와 규범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있었다. 개인의 이윤추구를 배제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김도균, 2011), 지역의 복원을 위해 서로가 힘을

모으는 강한 임파워먼트 효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탄력성은 지역 주민 간의 상호교류,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유연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협의체, 취약계층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연계,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이에 대한 지식과 시스템 공유, 위기에 따른 유연성,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체의 규범과 역량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공동체의 탄력성 개념에 기초하여 재난 연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를 표 4에 정리하였다. 표 4는 Glavovic(2005)가 제시했던 재난 연구 패러다임

표 4. 재난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시기	과 거(초창기)	현 재	미 래
주요 내용	위난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재난관리 국가 주도 관리	노출된 위협에 대한 사전 취약성 예방과 다학제적 해결을 추구, 민관 협력관리	다양한 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재난을 통해 유기체로서 체계를 학습하고 성장하는 통합적 관리
관심 대상	위난(Hazard)	취약성(Vulnerability)	탄력성(Resilience) 및 적응력(Adaptive capacity)
대응 양식	반응적(Reactive), 수동적	예방적(Proactive)	예방·사전조치적(Proactive & Precautionary)
관리 형태	중앙집권화에 의한 통제와 관리	고위험 집단과 환경에 대한 사전 예방강조. 시스템과 전문가 협업 관리	안전도시(공동체 내, 집단 간 유기적 연결강조) 개방적, 자율적, 협력적, 통합적 관리
대응 주체	단일기관(Single Agency)	파트너십(Patnership)	네트워크(Network) & 공동체(Communities)
접근	과학중심(Science driven)	다학제접근(Multi-disciplinary)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관리 방식	대응관리(Response Management)	위기관리(Risk management)	통합·발전적 관리(Integrated & Developmental Management)
관리 목표	공동체를 위한 관리	공동체와 함께 관리	공동체에 의한 관리
강조점	보상, 치료 사후대응역량	위험인지, 보호시스템, 전문성	시민 리더쉽, 연결망, 신뢰

변화를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Glavovic(2005)에 따르면 미래지향적 재난관리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관리 및 대응의 주체가 되어 통합적인 접근과 발전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형태가 된다. 이제 재난관리는 재난을 견디는 '위난(hazards) 차원이 아니라 탄력성의 개념 즉, 위난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체 시스템이 신속하게 회복되는 대처역량 및 능력(the coping capacity)'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McEntire, 2001).이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재난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통합적 관리모형이다. 이는 공동체는 재난관리의 수혜자나 수동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각 학자들마다 다양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아이디어는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 연결과 이를 위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핵심이다. 이 때 기업, 정부, 시민단체, 국제기구 또는 마을 공동체와 같은 자연스런 연합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과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협력적인 네트워크 혹은 연결망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망은 재난 이전에 예방적이고 사전 조치적 차원에서 상시에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체에 의한 통합적 관리는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며 이 때 기반이 되는 것은 공동체의 규범, 가치관, 시민의 리더쉽과 상호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다.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재난을 통해 개방적이고 자율적 협력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학습하며 성장하는 유기적이고 탄력적 형태의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5월까지 국내외 학술 연구 데이터 베이스에 소개된 재난 트라우마와 지역공동체 탄력성을 다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난 트라우마는 개인 트라우마와 달리 지역공동체 안에서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의 상처들이 깊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집단 공동체의 합의된 규범이나 이해가 없을 때, 사회적 무질서나 통제 불능에 대한 엘리트 패닉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때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통해 집단 트라우마로 발전한다.

둘째, 집단 트라우마는 “재난으로 인한 지역의 물리적 피해에 대한 다양한 구성원들의 피해 집합 이상이며 피해자와 외부 원조자를 포함한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로 야기되는 지역공동체의 문화 경제적, 심리 사회적 피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셋째, 집단 트라우마를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 트라우마 현상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집단 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때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고통을 공유하고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때 그 때 떠오르는 집단의 이슈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어가는 것과 책임 있는 성찰과 반성, 애



도를 거쳐 집단 밑바닥에 깔린 공동체적 이야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공동체 탄력성 문헌들을 리뷰한 결과, 지역공동체 탄력성은 재난을 건디는 '위난(hazards) 차원이 아니라 탄력성의 개념 즉, 위난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공동체 시스템이 신속하게 회복되는 대처역량 및 능력(the coping capacity)'을 의미(McEntire, 2001)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수혜자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섯째, 지역공동체 탄력성은 지역 주민 간의 상호교류, 지역 문제에 대한 참여활동, 유연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협의체, 취약계층과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연계,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이에 대한 지식과 시스템 공유, 위기에 따른 유연성,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체의 규범과 역량에 달려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 연결과 이를 위한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핵심이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그 동안 학계와 개입현장에서 상당히 합의되어 왔던 재난에 대한 개인 트라우마 개념의 한계를 밝히고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의 공동 위기, 고통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집단 트라우마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재난 트라우마를 집단 트라우마로 바라보는 관점은 치료와 보상의 범위를 개인 단위가 아닌 지역공동체 단위로 확장하여 고려할 것을 시사한다. 즉, 재난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생태학적 측면까지 치료와 회복의 범위로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다양한 문헌들에 나타난 지역공동체 탄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공통적 요소로서 공동체에 의한 주체적 역할과 강한 탄력성

을 가지기 위한 공동체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역공동체가 강한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주체가 되고 재난을 통해 유기체로서 체계를 학습하고 성장하는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재난 개입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발생 이후 집단 트라우마는 개인 트라우마보다 천천히 나타나지만, 그 파급효과는 지역공동체 연대를 파괴하고 균열을 일으키며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공동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재난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 트라우마 치료 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집단 트라우마 현상에 대한 탐구와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지도자들이 재난 현장 접근과 회복의 과정을 보다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는 개인에게 있어서 삶의 중요한 터전이자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지만, 외부나 내부의 심리 사회적 환경에 따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혹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접근은 개인의 치료와 보상 문제 차원에서 더 나아가 역동하는 유기체로서 재난 지역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문화적, 심리사회적 측면까지 집단 트라우마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재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집단 트라우마를 다루고 지역공동체와 개개인의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루기 위한 유연

하고 문제 해결적인 재난 공동체의 집단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재난은 물리적 피해를 일으킬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심리 사회적 갈등, 제한된 자원의 배분과 보상, 이주와 정착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형태 등 발생 이후 복구과정에서도 다양한 공동체의 위기를 일으킨다. 특히 하향식 원조나 외부 원조가 보상과 같은 개인적 지원에만 국한될 때 공동체의 갈등과 균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교현, 권선중, 2009; 정지범, 이재열, 2008). 따라서 집단 트라우마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집단 환경이 필요하다. 문헌들은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사소통을 토대로 공동체 간의 고통과 사실적 정보를 공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 대응과 적응을 위한 적절한 가치 규범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적절한 집단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집단의 역동에 대한 이해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상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 문화 형성 등 적절한 집단 환경에 대한 이해와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실천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집단 트라우마는 성급하게 정상화를 도모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성숙한 대응과 책임 있는 성찰을 통해 집단의 기억을 공유하고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Pieper(2011)은 집단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불행의 흔적을 하루 빨리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충분히 직면하고 다양한 추모의식과 장소를 마련하여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난사건에 대한 건설적인 성찰이 일어날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동

체는 상처 입은 '우리'와 무감각한 '그들'로 균열이 일어나고 불신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Erickson(1995)은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개인의 회복은 집단의 회복을 뛰어 넘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개인의 상처는 연결된 이웃의 아픔이 되기 때문이며 이 상처와 아픔에 대한 반응이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재난이 공동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애도를 거쳐 성숙한 집단의 기억과 통찰의 통합 작업에 이를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공동체가 재난의 트라우마를 벗고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높은 탄력성이 필요하다. 지역공동체 탄력성은 재난 이후 일상성을 회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재난에 강한 시스템, 역량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높은 수준의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리 가용한 공동체의 자원들을 극대화하여 배분하고 지역사회의 공동규범을 발달시키며 어떻게 자생적으로 최대한 탄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홍덕화, 구도완, 2009).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탄력성을 위한 시스템을 사전에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공동의 가치를 지닌 자생적이고 조력적 문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유사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범과 네트워크, 조력적인 문화형성과 복원 가치 등에 대해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의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결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내부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사이의 연결, 그리고 공동체와 보다 상위

의 공식화된 기관들과의 연결도 중요하다. 정지범, 이재열(2009)는 마을과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중재자의 존재라고 언급하면서 중재자는 양쪽 모두와 신뢰를 맺고,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동체와 공동체, 공동체와 기관들의 교량적 연결을 위해서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연계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도 진도와 안산 그리고 인근 지역의 병원, 봉사단체, 상담센터 등 다양한 연계협력이 있었지만, 이를 체계화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중재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부족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연합뉴스 2014, 7, 10). 다양한 연계 협력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공동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 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대상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나 행정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탄력성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큰 자원은 신뢰와 의사소통이라는 심리적 자원이라고 제시한다(노진철, 2014). 정부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서로 반목하게 된 사례에서 보듯 신뢰가 깨어지면, 공동체가 힘을 잃고 균열하고 붕괴하게 된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재난을 겪는 과정에서 사망, 보상, 피해범위 등 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이 일어날 요소가 많이 있다.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으며 서로 들어주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육, 훈련,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Kirby와 Shu(2010)가 가나 분쟁 지역에서 실시

한 문화드라마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풀 수 있는 개입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집단들이 재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Leveton과 Volkas(2010)는 이와 관련하여 고통스런 기억과 만나게 될 때 은유적이고 보호적인 상징의 사용, 서너 명의 지지적 이중자(double)를 사용하는 등 보호와 지지체계를 갖춘 사이코드라마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지역공동체와 다양한 구성원을 돕기 위한 상담프로그램과 개입 지침이 섬세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영향 받은 심리적 반응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며 대처 자원의 부족과 정보 부족에 따른 혼란을 반영한다는 측면이다(Bisson, Roberts, & Macho, 2003). 따라서 대처 자원의 확보와 확보방법에 관한 정보, 재난이 지역사회의 역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Serrieb과 Norris(2009)은 공동체의 적응 능력 중 하나로 정보통신 즉, '책임성 있는 미디어', '기술과 인프라',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역할을 꼽았다. 언론에서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재난 시 대처방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재난을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미확인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사망자 명단을 잘못 내 보내는 일 등은 재난에 취약해진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또한 '구제역'이나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처럼 격리가 확산 방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적절한 정보통신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격리와 동시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매체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헛된 이야기나 억측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나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정보와 대처에 대한 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 트라우마의 한계를 밝히고 집단 트라우마로서 재난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소수의 문헌을 토대로 재난에 나타난 집단 트라우마의 구체적인 특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집단 트라우마의 다양한 증거들이 재난 현장에서 보고되었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와 측정, 개입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질적 분석, 임상적 관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탄력성은 사회적 신뢰 측정, 네트워크의 분석, 역량 분석, 정책 분석, 경제 비용 산출, 지역 정신건강 모델 등 다양한 기법과 연구주제들을 토대로 통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본 연구자의 연구 역량으로는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아직까지 심리사회학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들이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관리시스템이나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등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이고 세밀한 시사점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탄력성에 대한 심리 전문가들의 실증적 연구들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친·인척 등 사회적 연결망이 높으며 정부에 대한 의존과 불신이 높은 경우 이러한 변인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토대로 보다 심층적이고 도착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역공동체 회복 모델과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과학백과사전 (2015). [www.scienceall.com/category/study-2/scidictionary/](http://www.scienceall.com/category/study-2/scidictionary/)에서 자료 연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4.12.3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249&efYd=20141230#0000>에서 자료 연음
- 김교현, 권선중 (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후 스트레스 반응: 사고 후 2개월과 8개월 시점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ECO: 환경사회학연구*, 13(1), 89-125.
- 김교현, 김세진, 권선중 (2009). 태안 주민들의 재난 적응 과정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이론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89-208.
- 김대호 (200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대처요법. *신경정신의학*, 44(2), 147-151.
- 김도균 (2011). 환경재난과 지역사회의 변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사회재난. *과주: 한울*.

- 김미리혜 (1998). 외상적 스트레스의 단기 관리: 위기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02-113.
- 노진철 (2014). 불확실성 시대의 제 위협과 국가의 위협관리: 루만의 사회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법과 사회* 47, 9-38.
- 류현숙, 정재기, 정지범 (2009).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재난에 강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과주: 법문사*, 13-56.
- 박상규 (2013). 대형 재난지역의 갈등관리에 관한 실증연구: 2007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32-43.
- 변주훈 (2010).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차별적인식과 사회적 갈등의 생성: 재난인류학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아시아경제 (2015, 6, 21). [메르스 사태] 교육부, 메르스 의료진 자녀 거부시 법적 조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112212360123>에서 자료 얻음.
- 안현의 (2007). 위기상담모델의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1), 103-113
- 안현의, 한민희, 주혜선. (201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지-기억 체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11-133.
- 양기근 (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249-256.
- 양기근 (2011).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전략. *사회과학연구*, 37(2), 75-96.
- 연합뉴스 (2014, 7, 10). 세월호참사 '靑 컨트롤 타워' 공방... 초기 대응 질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007525#>에서 자료 얻음.
- 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1). 재난피해청소년 개입매뉴얼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순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자원봉사자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145-179.
- 의협신문 (2015, 4, 10). 세월호 사건 이후 산지역 우울감 지수 1.68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46> 에서 자료 얻음.
- 이재열, 윤순진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태안군 석포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환경대학원*.
- 전대욱, 최인수 (2014). 공공정책의 생태계 조성 전략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적 적용. *지방자치-Focus*, 8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지범, 이재열 (2009). 재난에 강한 사회시스템 구축: 복원력과 사회적 자본. *과주: 법문사*.
- 최남희 (2006).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 복귀.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18.
- 최남희 (2011). 재난, 트라우마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 재난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의 의미.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31-40.
- 최남희, 노진철, 손영우, 이재은, 고금자, 고봉연, 배정미, 양기근, 오수성, 이병택, 이현송, 임숙빈, 임순광 (2008). 재난피해자 심

- 리관리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1). 서울: 소방방재청.
- 홍덕화, 구도완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사회갈등: 갈등의 제도화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52-62.
- Allen B., Brymer, M. J., Steinberg, A. M., Vernberg, E. M., Jacobs, A., Speier, A. H., & Pynoos, R. S. (2010). Perception of psychological first aid among providers responding to Hurricanes Gustav and Ik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3*(4), 509-513.
- Allen, J. A. B. & Nairne, J. (1984). *Class discussions for teachers and counsellors in elementary school*.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 Bisson, J. I., Roberts, N., & Macho, G. (2003). Service innovations - The Cardiff traumatic stress initiative: an evidence-based approach to early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llowing traumatic events. *Psychiatric Bulletin, 27*, 145-147.
- Cardona, O. D. (2003). The notions of disaster risk: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grated management. *Information and Indicators Program for Disaster Risk Management*. Manizale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2010, September). Moving towards Harmonization of Disaster Data: A Study of Six Asian Databases. <http://www.cred.be/download/download.php?file=sites/default/files/WP272.pdf> 에서 자료 얻음.
- Clarke. L. (2003). Terrorism and Disaster, Vol.11: New Threats, *New Ideas*. Stamford: CT: JAI Press.
- Cohen, R. E. (1990). *Post Disaster Mobilization and Crisis Counseling: Guideline and Techniques for Developing Crisis-Oriented Services for Disaster Victims*. Crisis Intervention Handbook: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79-299.
- Comfort, L. (1999). *Shaked risk: Complex systems in seismic response*. New York: Pergamon.
- Cutter, S. L. (1993). *Living with Risk*. London: Edward Arnold.
- Doherty, G. W. (2007). *Crisis intervention training for disaster workers, An Introduction*. Rocky Mountain Disaster Mental Health Institute Press.
- Erikson, K. (1976). Loss of community at Buffalo Creek,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3), 302-305.
- Erikson, K. (1995). *A new species of trouble*. New York: W. Norton.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3).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Guidance. [http://www.dhhr.wv.gov/health\\_prep/programs/behavioral\\_health/Documents/FEMA\\_Toolkit.pdf](http://www.dhhr.wv.gov/health_prep/programs/behavioral_health/Documents/FEMA_Toolkit.pdf)에서 2013 자료 얻음.
- Freudenburg, W. R. (1997). "Contamination, Corrosion and the Social Order: an Overview." *Current Sociology, 45*. 18-27.
- Fritz, C. E. (1961). Disasters, In Merton, R. K. and Nisbet, R.A.(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651-694), New York: Harcourt.
- Glavovic, B. C. (2005). *Social resilience: building*

- layers of resilience to transcend waves of adversity.* Resilient Infrastructure Conference. Massey University.
- Gosney, J., Reinhardt, J. D., Haig, A. J., & Li, J. (2011). Developing Post-disaster Physical Rehabilitation: Role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Liaison Sub-Committee on Rehabilitation Disaster Relief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43(11), 965-968.
- Healey, M. (2002). The fragility of the moment: politics and class in the aftermath of the 1944 Argentine earthquake.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62, 50-69.
- 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2004). *World Disasters Report 2004; Focus on Community Resilience*. Geneva. IFRC.
- Institutd for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2009). *Measuring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for local populations*. Institutd for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 John, W. Barnhill, M. D. (2016). DSM-5 임상 사례집(강진령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4 출판).
- Jonathan, H. S. (2001). *Handbook of Crisis Counseling, Intervention, and Prevention in the school. (2nd ed.)*.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Mahwah, New Jersey,
- Kanel, K. (2006). *A guide to crisis intervention*, CA:BrooksCole/Thomson.
- Kellerman, P. F. (2007). *Sociodrama and collective trauma*. London: Jessica Kingsley.
- Kessler, R. C., Galea, S., Gruber, M. J., Sampson, N. A., Ursano, R. J., & Wessely, S. (2008). Trends in mental illness and suicidality after Hurricane Katrina. *Molecular Psychiatry*, 13, 374-384.
- Kinston, W., & Rosser, R. (1974). Disaster: effects on mental and physical stat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8, 437-456.
- Kirby, J. P & Shu, G. (2010). *Healing Collective Trauma Using Sociodrama and Drama Therapy*. New York.: Spring Publishing Company.
- LaCapra, D. (1994).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 Cornell University Press.
- LaCapra, D. (1998).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 Cornell University Press.
- LaCapra, D. (2004). *History in Transit: Experience, Identity, Critical Theory*. Cornell University Press.
- Lanzmann, C. (1995). *Shoah: the complete text of the acclaimed Holocaust film* New York: DaCapo Press.
- Lederach, J. P. (1997).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 Leveton, E. & Volkas, A. (2010). *Healing Collective Trauma Using Sociodrama and Drama Therapy*. Spring Publishing Company, LLC, New York.
- Mayunga, J. S.. (2007).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A Capital -based approach. a draft working paper prepared for summer academy and resilience building*. Munich. Germany.
- McEntire, D. A. (2001). Triggering agents, vulnerabilities and disaster reduction: towards a holistic paradigm. *Disaster Prevention and*

- Management* 10(3), 189-196.
- Middleton, N., & O'Keefe, P. (1997). *Disaster and Development: The Politics of Humanitarian Aid*. London/Chicago: Pluto Press. 61-73p.
- Mitra, H., Laily, P. & Jafar, A. (2008). Outcome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Adolescents After Natural Disaste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2, 466-472.
- Morris, W. (1982).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Disasters*, 22(1), 5-34
- Mort, M., Convery, I., Baxter, J., & Bailey, C. (2005). Psychosocial effects of the 2001 UK foot and mouth disease epidemic in a rural population, *qualitative diary based study*. *BMI*, 1-5p.
- Myers, R. (2005). Rethinking the Worst Case. *CFO*, 21(16), 89-91.
- Neria, Y., DiGrande, L., & Adams, B. G. (201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llowing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attack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mong highly exposed populations. *American Psychologist*, 66, 429-446.
- Norris F. H., Stevens S. P., Pfefferbaum B., Wyche K. F., Pfefferbaum R. L. (2008). Community resilience as a metaphor, theory, set of capacities, and strategy for disaster readi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127-150.
- O'keefe, P. K. Westgate and B. Wisner. (1976). Taking the naturalness out of natural disaster. *Nature*. 260, 566-567.
- Olf, M., Koeter, M. J., Haafte, E. H., Kersten, P. H., & Gersons, B. P. R. (2005). Impact of a foot and mouth disease crisis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farmer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6, 165-166.
- Pfefferbaum, B. & Doughty, D. (2001). Increased alcohol use in a treatment sample of Oklahoma City bombing victims. *Psychiatry*, 64, 296-404.
- Picou, J. S., & Marshall, B. K. (2007). Katrina as Paradigm-Shift: Reflections on Disaster Research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ociology of Katrina: Perspectives on a Modern Catastrophe*, Brunson, D. Oversvelt, D. Picou. J. S(Eds), MD: Rowman & Littlefield.
- Picou, J. Steven, Brent K. Marshall and Duane A. Gill. (2004). "Disaster, litigation and the Corrosive Community." *Social Forces*, 82(4), 1493-1522.
- Pieper, G. (2012). *쏟아진 옷장을 정리하며: 힘들고 아픈 나를 위한 치유의 심리학(유영미 역)*, 서울: 부키 (원전은 2011에 출판)
- Pine, J. C. (2009). *Natural Hazards Analysis: reducing the impact of disasters*. CRC Press.
- Plough, A., Fielding, J. E., Chandra, A., Williams, M., Eisenman D., Wells, K. B., Law, G. Y., Fogleman, S. & Magana, A. (2013). Building Community Disaster Resilience: Perspectives from a Large Urban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7), 1190-1197.
- Ramirez, M. & Peek-Asa, C. (2005). Epidemiology of traumatic injuries from earthquakes, *Epidemiologic Reviews*, 27(10), 47-55.
- Reich, J. W. (2006). Three psychological principles of resilience in natural disasters,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5(5), 793-798.
- Roberts, A. R. (2005). *Crisis intervention handbook. Assessment, treatment, and research. (3rd ed.)*



- Oxford University Press.
- Rothbaum, B. O., Astin, M. C., & Marsteller, F. (2005). Prolonged exposure versus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EMDR) for PTSD rape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 607-616.
- Ruggiero, K. J. (2001). Trauma Criterion A,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ientific Utility and Definition Validity, *West Virginia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Dissertation*, 56p.
- Shalev, A. Y. & Freedman, S. (2005). PTSD following terrorist attacks: A prospective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6), 1188-1191.
- Sherrieb, K., & Norris, F. H. (2009). Community Resilience and Health Outcomes in Mississippi Counties, *Kongelige Danske Videnskabernes Selskab. Historisk-Filosofiske Meddelelse*, 106, 70-87.
- Shultz, J. M., Espinel, A., Geaea, S., & Reissman, D. (2007). Disaster ecology: Cations for disaster psychiatry. *Textbook of disaster psychiat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pana, S. M, & Sell, T. K, & Morhard, R. (2013). Local Health Department Capacity for Community Engage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Disaster Resilience, *Biosecurity and Bioterrorism: Biodefense Strategy, Practice, and Science, 11*(2), 118-129.
- Stapleton, A. J., & Taylor, P. C. (2004). Representing the flow of R&D in a thesis: Diachronic structure & hyperlinking,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Australian Association, 1-15.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m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SDR (2015). <https://www.unisdr.org/who-we-are/what-is-drr> 에서 자료 얻음.
- Thomalla, F. & Larsen, R. K. (2010).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tsunami early warning systems and community disaster preparedness in the Indian Ocean Region, *Environmental Hazards-Human and Policy Dimensions, 9*(3), 249-265.
-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2009).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14, December). Disaster and Climate Risk Reduction Project (Phase II). [https://info.undp.org/docs/pdc/Documents/MDA/DCRR\\_Report\\_2014.pdf](https://info.undp.org/docs/pdc/Documents/MDA/DCRR_Report_2014.pdf) 에서 자료 얻음.
- Volkas, A. (2009). Healing the wounds of history: Drama therapy in collective trauma and intercultural conflict resolution. *Current approaches in Resilience: Determinants, Measurement, and Treatment Responsiveness*. In Johnson & Emunah (Eds.)
- Walker, B. & Salt, D. (2006). *Resilience Thinking*. Island Press. 20p.
- Westefeld, J. S. Heckman-Stone, C. (2003). The integrated problem-solving model of crisis intervention: Overviews and application. *Counseling Psychologist, 31*, 221-239.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5).

- Effective Communications Participant Handbook.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249241/3/9789241509466-eng.pdf?ua=1>에서 자료 얻음.
- Yule, W. (2006) Theory, training and timing: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complex emergencie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18(3), 259-264.
- Zhang, X., Y. & Zhao, D. (2013). Community based disaster management: a review of progress in China, *Natural hazards*, 65, 2215-2239.
- 원 고 접 수 일 : 2015. 09.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4. 27  
게 재 결 정 일 : 2016. 08. 16

## An Examination of Disaster Collective Trauma and Community Resilience

Oh, Hea-Young

Ewha Womans University

In light of recent large-scale disaster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oncepts of collective trauma and community resilience unique to disaster. After reviewing a variety of literature an evidence-based understanding was provided. The literature review exclusively utilized academic databases and web sites and was limited to publications and findings prior to 2015. Research showed that the concept of community resilience has been addressed and compared across various field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collective trauma through the limitation of personal trauma has been explored throughou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This study presents a new perspective of collective trauma and the community conflict dynamics induced by disaster situations. Data includ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undamental components towards increasing the resilience of disaster-stricken communities through policy and programmatic change that allow the community to become the main agent in pursuit of common interests with cooperating bonds.

*Key words* : Disaster, Disaster trauma, Collective trauma, Community, Resilience